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2. 14(수) 총 1매(본문 1)	
담당 부서	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	담당자	•과장 이용욱, 사무관 최승욱, 주무관 박정호 •☎ (044) 201-3875, 3877, 3880 •기획조정실장 신동희, 예산팀장 임정훈, 차장 이희정 •☎ (054) 811-1501, 1530, 1536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27조 빛 도공, 명절 면제로 매년 1,000억 손해’ 보도 관련

- 명절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여 고향 가시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.
 - 또한, 그간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, 요금납부를 위해 발생하는 요금소 부근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.
-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무여건 분석을 거쳐 명절 통행료 면제액 부담을 결정하였습니다.
 -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양호하고 현재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, 당기 순이익을 감안할 때 명절 통행료 면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
 - * (부채비율) 99.6%('11년) → 94%('13년) → 88%('15년) → 85.8%('16년)
 - ** (당기순이익) 832억('12년), 804억('13년), 1,165억('14년), 1,316억('15년), 1,351억('16년)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'18. 2.14.) >

- ◆ 「27조 빛 도공, 설·추석 통행료 공짜로 매년 1,000억 손해」
 - 명절 통행료 면제 손실액은 결국 국민부담
 - 명절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 재무여건을 악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정책과 최승욱 사무관(☎ 044-201-38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